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3권 6편 그리스도인의 삶 · 자기를 부인함

제3권 6장 1~5절, 7장 1~10절

?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흐름 한눈에

칼빈은 먼저 3권 6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철학자들은 인간 본성의 존엄에 호소한다. 반면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과 모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장차 올 영광이라는 훨씬 단단한 근거를 댄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는 말로만 믿는 사람을 꾸짖으면서도,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며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균형을 잡는다. 7장에서는 이 삶의 중심 원리를 '자기 부인'으로 묶는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 이웃과의 관계(나를 낮추고 받은 것을 나누며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와 하나님과의 관계(성공·실패·재난까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로 넓혀 간다. 결론은 이렇다. 자기 부인은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 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할 때 이웃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얻는다.

 절별 정리 1. 성경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가르침 (3.6.1)

칼빈은 앞에서 다룬 중생(重生: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의 목표부터 다시 짚는다. 그 목표는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의(義: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다 들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고 더디기 때문에 성경 곳곳의 권면을 모아 자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한 사람이 열심만 앞서다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 칼빈은 덕목(정직·절제처럼 좋은 성품의 항목)을 하나하나 길게 다루지 않겠다고 밝힌다. 그 대신 경건한 사람이 질서 있게 살도록 돕는 몇 가지 보편 원리만 짧게 주겠다고 한다. 그는 덕목 하나에 긴 글을 쓴 옛 스승들도 헛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다만 성경에도 철학처럼 논리적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더 분명하다고 본다. 철학자들은 자기 지혜를 뽐내려고 형식을 다듬는다. 성령은 다른 속셈 없이 가르치시면서도 필요한 만큼 질서를 보여 주신다는 것이 칼빈의 대비다.

1. 중생의 목표: 삶이 하나님의 의와 맞는 것
2. 하나님의 자녀임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3. 기준은 율법에 있지만 우리에게겐 자극이 필요
4. 덕목 나열 대신 몇 가지 보편 원리만
5. 성경의 질서는 철학보다 더 분명하다

갈라디아서 4:5

그리스도가 우리를 양자 삼으려고 오셨다. 중생의 목표인 '자녀 됨'의 근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1:10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녀 됨을 삶으로 확인하라는 권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2. 거룩한 삶: 하나님과의 연합의 끈 (3.6.2)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인간

원리를 준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다. 세상이라는 미로를 양처럼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그분의 울타리 안에 두셨다. 칼빈은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연합(하나로 묶임)을 잇는 끈이라고 말한다. 다만 거룩함이 공로가 되어 그 대가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먼저 하나님과 연합해야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차오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러움과 섞이지 않으므로,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악 속에 뒹군다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고 칼빈은 묻는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마구간처럼 더럽힐 수는 없다는 것이다.

1. 본성은 의를 사랑하지 않는다
2.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3.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잇는 끈
4. 공로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연합이 먼저
5. 악에 계속 머물면 구원의 목적이 무색하다

레위기 19:2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의 가장 확실한 근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15-16

같은 명령을 신약에서 반복.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함

¹⁵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¹⁶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35:8

‘거룩한 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바라볼 목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시편 116:19, 시편 122:2-9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백성은 성을 더럽히면 안 됨

시편 116:19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와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22:2-9 ²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³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⁴지파들 곧 여호와와 지파들이 여호와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⁵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⁶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⁷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

시편 15:1-2, 시편 24:3-4

주의 장막에 머물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거룩한 성소에 어울리는 삶

시편 15:1-2 ¹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²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시편 24:3-4 ³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⁴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3. 그리스도인의 삶: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 (3.6.3)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깨진 관계를 회복함)시키셨다고 가르친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셔서 그 형상에 맞게 살게 하셨다고 가르친다. 칼빈은 철학자들의 도덕철학이 덕을 권하기는 해도 결국 “본성대로 살라”는 말에 그친다고 비판한다. 성경은 세 가지를 함께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가 처음 지음받은 상태에서 타락했다는 것, 우리를 화목시키신 그리스도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셨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저버리는 배신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구원의 각 조각이 그대로 거룩한 삶의 이유가 된다고 하나씩 짚는다. 하나님은 아버지이니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으니 다시 더럽히지 않게, 그분 몸의 지체(몸의 한 부분)이니 흠 없이, 머리아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 하늘을 사모하며, 성령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썩지 않는 면류관이 기다리니 주의 날까지 몸과 영혼을 깨끗이 지키라는 것이다. 철학은 인간 본성의 존엄에서 한 치도 더 올라가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런 확실한 토대를 준다.

1. 철학은 “본성대로”, 성경은 구원에 근거
2.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타락, 그리스도는 모범
3. 받은 은혜 하나하나가 거룩하게 살 이유
4. 자녀·씻음·지체·성전·면류관
5. 헌신하지 않음은 창조주·구원자에 대한 배신

고린도후서 5:18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시키심. 모든 권면의 출발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라기 1:6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녀다움을 요구함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에베소서 5:1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에베소서 5:26, 히브리서 10:10, 고린도전서 6:11

그리스도가 씻고 거룩하게 하심. 다시 더럽히면 안 되는 이유

에베소서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0: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고린도전서 6: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15, 베드로전서 1:19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으니 거룩하게 살라

베드로전서 1: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에베소서 5:23-33, 고린도전서 6:15, 요한복음 15:3-6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 포도나무의 가지. 흠 없이 살아야 함

에베소서 5:23-33 ²³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²⁴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²⁵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²⁶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²⁷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

고린도전서 6: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3-6 ³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⁴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⁵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⁶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골로새서 3:1-2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 위의 것을 찾으라

¹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²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16, 고린도전서 6:19, 고린도후서 6:16

우리는 성령의 성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죄에 물들지 말아야 함

고린도전서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미래 소망이 현재의 순결을 이룸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23, 빌립보서 1:10

주의 날까지 영·혼·몸을 흠 없이 지키라

데살로니가전서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4. 거짓 그리스도인의 오류 (3.6.4)

칼빈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과 겉모양만 가진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한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만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 바울은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복음을 아무리 줄줄 말해도 삶이 그대로라면 아는 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리를 아는 일은 다른 학문처럼 이해력과 기억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영혼 전체가 사로잡히고 마음 깊이 자리 잡아야 비로소 안다. 칼빈은 지금까지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 왔다고 말한다.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리는 마음에 들어가 일상을 바꾸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철학자들조차 말로만 지혜를 떠드는 사람을 멀리했다면, 마음을 바꾸어야 할 복음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은 더욱 멀리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한다.

1. 이름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욕한다
2. 진리는 이해·암기가 아니라 삶으로 안다
3. 교리가 먼저지만, 교리는 삶을 바꿔야 한다
4. 복음은 철학보다 백 배 깊이 사람을 바꾼다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배운 것이 아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5. 그리스도인의 불완전한 삶 (3.6.5)

칼빈은 앞 절이 지나친 요구로 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다. 그는 복음을 완전히 실천하라고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완전을 이르지 못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완전을 최종 목표로 세우고 쉬지 않고 그쪽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다. 말씀 가운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순종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겉치레 없는 온전한 마음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찾으신다. 물론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누구도 쉬지 않고 전진할 힘이 없다. 대부분 머뭇거리고 뒷걸음질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래도 아무리 약한 그리스도인도 날마다 조금씩은 나아간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자꾸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라고 칼빈은 권한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한마음으로 목표를 바라본다면 그 노력은 헛되지 않다. 다만 스스로 우쭐하거나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완전한 목표에는 이 약한 몸을 벗고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에 들어가는 날 도달한다.

1. 완전해야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완전을 목표로 계속 달려야 한다
3. 말씀을 골라 순종하는 두 마음은 안 된다
4. 넘어져도 포기·좌절 말고 매일 한 걸음
5. 완전은 이 몸을 벗는 날 이루어진다

창세기 17:1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시편 41:12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두 마음과 반대되는 순전함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여정에서 조금씩은 전진하는 법이다.”

세속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 1-3

1. 하나님이 주인이심 (3.7.1)

신자의 삶에 대한 완전한 기준은 이미 율법에 질서 있게 나와 있다. 그래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더 정확하게 훈련시키려 하신다. 그 주요 원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곧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로마서 12:1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권면도 여기에 뿌리를 둔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러졌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계획하지도,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 거룩한 것을 사사로운 용도로 쓰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를 세 번 되풀이한다. 그러니 내 생각과 뜻이 내 계획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죄악된 육체에 편한 것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되며, 할 수 있는 대로 나와 내 것을 잊어야 한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도 세 번 되풀이한다. 그러니 그분을 위해 살고 죽으며, 그분의 뜻과 지혜가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하고, 그분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유일한 피난처는 주님의 인도만 따르는 것이다. 칼빈은 이 변화, 곧 바울이 말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철학자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한다. 철학자들은 이성인 사람을 다스린다고 보았다.

1.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기본 원리
2. 구별된 것을 사사롭게 쓰면 하나님을 모욕
3.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4. 자기에게 복종함이 멸망의 지름길
5. 다스리는 자리에 이성 대신 성령을

로마서 12:1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는 주요 원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2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1절에서 흘러나오는 권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6:19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출발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8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에베소서 4:23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첫 관문, 철학자들이 몰랐던 것

갈라디아서 2:20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 성령이 이성의 자리를 다스리시는 결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2.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 (3.7.2)

두 번째 원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행동하는 것이다. 성경이 사사로운 관심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은 부·권력·사람들의 칭찬을 지나치게 바라는 마음만 가리키지 않는다. 세상 영광을 향한 모든 야망과 더 은밀한 악한 마음까지 포함한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헛된 생각을 피하게 된다. 칼빈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자기 부인이라고 말한다. 자기 부인이 자리 잡으면 교만·허세·탐욕 같은 자기 사랑의 열매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뻔뻔한 죄에 빠지거나, 덕을 행해도 칭찬받고 싶은 욕심에 더럽혀진다. 철학자들은 덕을 덕 자체를 위해 행하라고 했지만, 칼빈은 그들이 결국 자기 자랑을 드러냈다고 본다. 주님은 칭찬을 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셨고, 세리와 창녀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다. 영혼에 숨은 수많은 악을 고치는 길은 하나뿐이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1. 내 뜻이 아닌 주님 뜻, 주님 영광을 구한다

2. 내려놓을 것: 부·권력·칭찬, 숨은 악심까지

4. 자기 부인 없는 선행은 칭찬 사냥이 된다

5. 숨은 악의 유일한 치료는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24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2-5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악의 목록. 자기 부인이 없앨 것들

²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³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⁴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⁵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태복음 6:2, 마태복음 6:5, 마태복음 6:16

보이려고 하는 선행은 “이미 상을 받았다”. 칭찬을 노린 덕의 결말

마태복음 6: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에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 디도서 2장의 교훈 (3.7.3)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짧고도 분명하게 요약한 본문으로 디도서 2:11-14를 든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해 힘을 북돋운다. 그다음 두 가지 장애물을 치운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미신뿐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오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범위가 더 넓은 '이 세상 정욕'이다. 이는 육체의 욕심과 같은 뜻이다. 칼빈은 이것을 율법의 두 돌판(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은 십계명 전체)에 걸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성과 의지가 주도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뜻으로 읽는다. 바울은 새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신중함'은 순결과 절제, 재물을 검소하게 쓰는 것, 가난을 참고 견디는 것까지 포함한다. '의로움'은 각 사람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공평의 의무 전체다. '경건함'은 세상의 부패에서 우리를 떼어 내 하나님과 이어 준다. 이 셋이 끊을 수 없게 묶일 때 온전한 삶이 된다. 그러나 정욕을 끊고 부패한 세상에서 천사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몹시 어렵다. 그래서 바울은 복된 소망을 덧붙인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구원의 열매를 보여 주실 것이니 이 싸움은 헛되지 않다. 그러니 하늘의 기업을 놓치지 않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는 것이다.

1.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새 삶으로 이끈다
2. 버릴 것: 불경건과 이 세상 정욕
3. 따를 것: 신중함·의로움·경건함
4. 신중함은 나, 의로움은 이웃, 경건은 하나님
5. 재림의 소망이 이 싸움을 버티게 한다

디도서 2:11-14

¹¹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¹²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¹³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¹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16, 에베소서 2:3, 베드로후서 2:18, 갈라디아서 5:16

'이 세상 정욕'이 곧 '육체의 욕심'임을 보여 주는 평행 구절

요한일서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에베소서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베드로후서 2:18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갈라디아서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3:7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라. '의로움'이 공평의 의무임을 보여 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데살로니가전서 3:5

수고가 헛되지 않게. 소망이 우리 싸움을 지켜 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4. 나를 낮추고 남을 높임 (3.7.4)

자기 부인은 하나님과 관계될 뿐 아니라 사람과도 관계된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고난 감정을 비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누구나 맹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남을 깔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칼빈은 그 모습을 날카롭게 묘사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만 있어도 교만으로 부풀고, 내 허물은 감추거나 덕으로 포장한다. 남에게 나보다 나은 것이 보이면 지기 싫어서 깎아내리고, 남의 잘못은 크게 부풀린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하인이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모두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모두 가슴속에 자기만의 왕국을 세운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너그럽다가도 일이 틀어지면 독을 뱉는다. 치료법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 병을 뿌리째 뽑는 것뿐이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것은 배은망덕일 뿐이다. 그러니 내 허물을 부지런히 살피고 겸손을 지키고, 남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존중해야 한다. 남의 허물은 덮어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아첨으로 부추겨서도 안 되고,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해서도 안 된다. 진짜 온유함에 이르는 길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뿐이다.

1. 자기 부인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2.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높이고 남을 깔는다
3. 내 은사는 받은 선물, 자랑은 배은망덕
4. 내 허물은 살피고 남의 은사는 존중한다
5. 남의 허물은 덮고 아첨하지는 않는다

로마서 12:10

서로 먼저 존경하라. 남을 높이라는 명령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빌립보서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고린도전서 4:7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교만을 뽑는 결정적 질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5. 이웃의 유익을 구함 (3.7.5)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의무다. 그러나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우리 본성은 이 한 가지조차 거의 해내지 못한다. 내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원리를 일깨운다. 주님이 무엇을 주셨든 그것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쓰라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웃과 나누라고 맡기신 위탁물이다. 성경은 이것을 몸의 지체에 빚댄다. 어떤 지체도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각 지체는 다른 지체에 힘을 쏟고, 온몸이 함께 얻는 유익 말고 따로 챙기는 유익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고, 맡은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한다. 청지기 일을 바르게 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지 않고 누리는 것은 잘못임을 몸으로 익히게 하셨다. 누군가는 드린다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칼빈은 시편을 들어 답한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보탬이 되지 않지만 땅에 있는 성도에게 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부른다.

1.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2. 받은 모든 것은 이웃을 위한 위탁물이다
3. 몸의 지체는 자기만 위해 일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께 보고할 날이 있다

고린도전서 13:4-5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 자기를 버려야만 가능한 사랑

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⁵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베드로전서 4:10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는 청지기. 소유는 위탁물이라는 원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고린도전서 12:12

한 몸, 많은 지체. 서로를 위해 기능하는 지체의 비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출애굽기 23:19

첫 열매를 드리라.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선물이 거룩해짐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시편 16:2-3

우리의 선은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땅의 성도에게 미침. “하나님이 부자 되시나?”라는 반문에 대한 답

²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³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히브리서 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6. 이웃을 향한 사랑 (3.7.6)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를 덧붙여야 한다. 주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행실로 따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서 성경은 놀라운 이유를 준다. 그 사람의 자격을 보지 말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것이다. 우리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도 다 그 형상 덕분이다. 믿음의 가정에게는 이 원칙을 더 세심하게 지켜야 한다. 그들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거절할 핑계를 하나씩 무너뜨린다. 낯선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를 '네 골육'이라고 하시며 멸시하지 말라고 하신다.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에게도 당신 형상의 아름다움을 주셨다. 내가 도울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를 당신 자리에 세우셨다. 가치 없고 오히려 나를 해친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를 사랑으로 품지 않을 정당한 이유는 없다. 그가 받은 대로 갚아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라고 명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사람의 악을 보지 않고 그 안의 하나님 형상을 보는 것이다. 그 형상이 그의 허물을 덮고,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를 품게 한다.

1.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에 선을
2. 자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
3. 낯선 이도 내 골육, 비천한 이도 형상을 지님
4. 용서 명령은 주님이 그 죄를 지셨다는 뜻
5. 원수 사랑은 하나님 형상을 볼 때 가능하다

갈라디아서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3:4-5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음. 낙심을 막는 사랑의 요소

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⁵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히브리서 13:16

선을 행하라. 대상에 예외가 없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6:10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에 더욱. 우선순위의 근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사야 58:7

“네 골육을 피하지 말라”. 낯선 사람도 같은 살붙이로 보라는 근거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태복음 6:14, 마태복음 18:35, 누가복음 17:3

용서하라는 명령. 나를 해친 사람도 품어야 할 이유

마태복음 6: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누가복음 17: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마태복음 5:44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7. 이웃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함 (3.7.7)

이런 사랑의 의무를 실천할 때 비로소 자기를 죽이는 일(mortification: 옛 자아의 욕심을 꺾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겉으로 의무를 다 행했다고 사랑을 실천한 것은 아니다. 순전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칼빈은 당시 사람들이 구제할 때마다 상대를 깔보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그런 태도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미소와 예의 바른 말씨만으로도 부족하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자리에 나를 세우고, 그의 불행을 내 일처럼 아파해야 한다. 그래야 내 몸을 돌보듯 그를 도울 수 있고, 돕는다는 이유로 그를 깔보거나 내 아래에 두려 하지 않게 된다. 몸에서 한 지체가 병들면 나머지 지체가 수고한다. 그러나 어떤 지체도 “공짜로 고생했다”며 병든 지체를 멸시하지 않는다. 지체들의 수고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서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 가지 의무를 했다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얼마를 헌금하고 나머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부자를 예로 든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부유해도 누구나 이웃에게 빚진 사람으로서 힘닿는 데까지 도와야 한다.

- 1.** 겉으로 한 의무만으로 사랑이 되지 않는다
- 2.** 깔보며 돕는 구제는 구제를 망친다
- 3.** 그의 불행을 내 일처럼 느끼고 돕는다
- 4.** 병든 지체를 돌보며 생색내는 지체는 없다

이 절에는 칼빈이 직접 인용한 구절이 없음 (몸의 비유는 5절의 고린도전서 12:12를 이어받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자기 부인의 원리. 8-10

8.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김 (3.7.8)

칼빈은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자기 부인을 이미 말했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자기 부인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지만 살피겠다고 한다. 성경은 이 땅에서 평안을 얻으려면 나와 내 소유를 주님 처분에 맡기라고 가르친다. 내 열심도 주님이 길들이시고 다스리시게 내어 드려야 한다. 우리는 부귀·명예·권력·재물·사치를 미친 듯이 끝없이 쫓는다. 반대로 가난하고 출신이 낮고 보잘것없는 처지는 끔찍이 싫어하며 피하려고 온 힘을 쓴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거나 가난을 피하려고 안절부절 계획을 세우고 지칠 때까지 뛰어다닌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번영은 바라지도 꿈꾸지도 말아야 한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수완이 좋고 부지런해도 헛되다. 주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만으로 모든 장애를 넘는다. 둘째, 하나님의 복 없이도 어느 정도 명예와 부를 얻을 수는 있다. 악인이 잘사는 모습을 날마다 보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조금도 누리지 못한다. 복 없이 얻은 것은 결국 불행을 낳는다. 그러니 내게 불행을 더할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1. 자기 부인은 마음의 평정과 인내를 준다
2. 우리는 성공은 미친 듯 쫓고 가난은 질색한다
3. 하나님 복과 상관없는 번영을 바라지 말라
4. 복이 없으면 수완과 노력도 헛되다
5. 복 없이 얻은 성공은 결국 불행을 더한다

—
이 절에는 칼빈이 직접 인용한 구절이 없음

9. 주님 주시는 복을 의지함 (3.7.9)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부귀와 명예를 탐하지 않고, 내 수완이나 부지런함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기대지 않고, 행운을 꿈꾸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를 따르며 주시는 형편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면 재물과 명예를 얻으려고 웅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웃을 해치는 일도 없어진다. 사기와 강도질과 술수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일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질 리 없다. 그러니 복을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악한 계획에서 돌아서게 하고, 출세욕에 재갈을 물린다. 일이 바라는 만큼 되지 않아도 조급해하거나 처지를 비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빈부와 귀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이 잘되어도 내 공로나 노력이나 운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남은 잘되는데 나는 안 풀려도, 성공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평안하게 자기 처지를 견딘다. 주님이 자기 구원에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이끄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칼빈은 젓 떼 아이처럼 영혼을 고요하게 한 다윗을 그 본보기로 든다.

1. 결과는 하나님 복에 달렸으니 주께 시선을
2. 사기·편법으로 하나님 복을 기대할 수 없다
3. 안 풀려도 조급·비관은 하나님께 불평이다
4. 잘 풀리면 내 공로·운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5. 남이 잘될 때도 평안할 안식처가 있다

시편 131:1-2

교만하지 않고 젓 떼 아이처럼 고요한 영혼. 주님 인도에 자신을 맡긴 다윗의 모범

¹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²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젓 떼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젓 떼 아이와 같도다

10. 역경을 이기는 힘 (3.7.10)

이런 평안과 인내는 재물과 명예 문제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에서 드러나야 한다. 자기 삶의 여정 전체를 주님 처분에 맡긴 사람만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스스로 무너지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다. 칼빈은 우리 삶에 닥치는 일들을 늘어놓는다. 질병, 전염병, 전쟁, 일 년 농사를 망치는 우박과 서리, 기근, 아내·부모·자녀·친척의 죽음, 집이 불타는 일이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삶을 저주하고 태어난 날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잔인하고 불의하다고 욕한다. 그러나 신자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다운 자비를 생각한다. 가족을 다 잃고 홀로 남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집이 황폐하지 않다고 여기며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 흉년이 들어도 주님이 먹이실 것을 믿는다. 아무리 아파도 무너지지 않고,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깨달으며 견딘다. 칼빈은 이교도의 위로를 단호히 물리친다. 그들은 역경을 운명 탓으로 돌린다. 운명은 목적도 지각도 없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친다. 그러니 거기에 화내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경건의 원리는 반대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며, 마구잡이가 아니라 질서 있는 공의로 좋은 일과 궂은 일을 베푸신다.

1. 삶 전체를 맡긴 사람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
2. 질병·전쟁·기근·사별·화재 속에서도
3. 신자는 아버지의 자비를 생각한다
4. 모든 일을 하나님 손에서 온 것으로 받는다
5. 맹목적 운명 탓은 비참한 거짓 위로다

시편 78:47

(참조) 우박과 서리로 농사가 망가지는 재해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보여 주는 배경 구절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시편 79:13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재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자의 고백

오해와 반론

용어

중생(重生)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새 사람이 되는 것. 칼빈은 그 목표를 하나님의 의에 맞는 삶으로 본다.

양자(養子)

하나님 가족으로 입양된 자녀라는 뜻. 본래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과의 연합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이는 것. 거룩한 삶은 이 연합의 결과이지 연합을 얻는 값이 아니다.

자기 부인

나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넘겨 드리는 것이다.

육체 / 육체의 소욕

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된 본성과 그 욕심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새기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 칼빈은 모든 사람을 존중할 근거로 이것을 든다.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사람. 내 소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삶. 디도서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덕이다.

자기를 죽이는 일(mortification)

옛 자아의 욕심을 꺾어 가는 일. 칼빈은 이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흔히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뒷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나눈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인간 본성의 존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다.
- 교리는 반드시 삶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완전이 아니라 날마다의 전진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기 부인이다.
- 자기 부인은 이웃을 향해서는 겸손·나눔·원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공과 역경을 모두 맡기는 평안으로 나타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